

중산층 몰락·실업률·경기침체 ...

지구촌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

박양수 지음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을 어떻게 극복할까? 금융위기나 재정 위기 없이 글로벌 경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구조적 장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구촌 경제의 앞날을 예단하기 어렵다.

국내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정농단 사태, 중산층의 파산,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사회적 모순이 누적되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우리를 앞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구촌 공존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생존 문제는 세계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화두다.

지구촌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주류와 비주류 경제학의 아이디어를 망라해 해결책을 모색한 책이 나왔다. 경제학 박사인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이 펴낸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박 본부장은 함평 학다리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

하고 1991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이후 조사국, 정책기획국, 금융안정국 등 주요 정책 부서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4년에는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만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저자는 풍부하고 실증적인 경험과 연구를 통해 축적된 수많은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주류경제학에서 출발해 그 한계가 무엇인지 제각하며 포스트케인스인 등 과거 비주류였던 경제학자들의 사고와 어떻게 연결해 낼 수 있는지도 모색한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190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정리한다. 2장에서는 경제 환경 변화가 어떻게 경제 주체들의 행태와 연관돼 있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조려했는지 분석한다. 3장은 주요 경제 현안을 토대로 경제학자와 정책당국자들의 논쟁을 소개한다.

4장과 5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들여다본다.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학, 경제학과 공공성, 시민권과 고용 및 소득 등을 화두로 세계 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저자는 실리주의의 자세를 견지한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학적 지식과 모델, 정책 등을 기반으로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는다. 저자는 중용의 자세를 강조하는데, 이는 적당한 타협이 아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는 데 바탕이 놓여있다.

(아마존의 나비·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결혼의 문화사

알렉산드라 블레이어 지음



"이불을 부드러운 깃털로 채울 것인가, 뽀뽀한 짐으로 채울 것인가? 누군가를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건 인생을 통틀어 매우 결정적인 일이며 자업자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돈 없이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은 밤마다 행복하겠지만 눈을 뜨는 아침에는 참담하다."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굳이 고대 로마의 법조인이자 행정관인 소플리니우스의 말이 아니라도, 자산은 결혼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결혼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리고 국가와 인종, 계층에 따라 결혼을 보는 관점도 상이하다. 또한 결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 수 없다. 오늘날 자발적인 비혼자들이 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혼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여전하다.

독일의 사회학자 카를 렌츠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란 성별이 다른 결혼 연령기의 두 사람이 적법한 범규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급의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가정을 이루며 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젊은이들은 점차 동거를 선호하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도 있다.



결혼 문화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독일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알렉산드라 블레이어가 펴낸 '결혼의 문화사'는 시대마다 달라진 결혼의 문화사를 다룬다. 저자는 유럽의 역사를 중심으로 배우자 선택의 조

건, 결혼생활, 결혼의 끝이라는 세 관점에서 변화 과정을 탐색한다.

역사적 사실로 살펴본 결혼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해로하겠다"는 로맨틱한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과거 유럽 왕족들은 정치적 이유로 얼굴 한 번 못 본 배우자와 결혼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왕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평민가의 귀족들과 시민계급 역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평민이나 노동계층의 결혼은 함께 일하기 위한 공동체 개념이었다. 이러한 의미는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당대 신문의 구혼광고란은 이를 방증한다. "남성복 및 여성복을 취급하는 31세의 재단사가 예비 동업자가 될 만한 배우자 또는 부유한 배우자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꿈만 같은 결혼식이 끝나면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린다. 목소리를 높일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은연중 쏟아지는 시어머니와 장모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한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어떤가. 저자는 "20세기에는 결혼 생활에서 에로틱과 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이전까지는 성에 대한 이중잣대, 나아가 다양한 시각이 상존했다는 것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남성 성으로 광란의 밤을 보내야 진정한 남자로 여겨졌지만 여성은 정절을 요구받는 불평등한 시대였다.

물론 성문제 뿐 아니라 그 외의 문제에서 부부는 부딪치는 부분이 많다. 싸움거리가 많을수록 불화에 갈 커풀도 늘어난다.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시대마다 달랐다. 저자는 책에서 결혼의 "인류학적 상수"가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늘날 결혼은 필요나 생존전략에 가까웠던 과거의 의미에서 벗어나 두 사람의 질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가깝다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의 발전에 맞춰 계속해서 진화한다. 그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시대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으면 구시대의 유톨로 전략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재출판·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논개의 성장 이야기



논개 1.2

김별야 지음

임진왜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여성이 있다. 바로 논개다. 1593년 왜군 장수를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그녀는 의로운 기생이자 순국의 아이콘이다.

최근 '논개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까지 할 정도로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역사속의 인물이다. 그러나 과연 논개와 연관해서는 총질의 정신만을 고정화해야 할까? 오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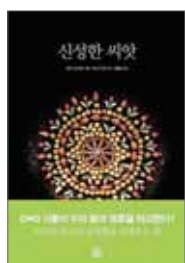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미실'의 작가 김별야가 펴낸 장편 '논개'(전 2권)는 작가가 조선시대 인물로 주인공을 다룬 두 번째 작품이다. 소설은 지난 2007년 발표됐지만, 이번에 새로운 편집으로 재출간됐다. 작가는 논개의 일화를 담아낸 '어우야담', '진주서사', '노랑기사' 등을 검토해 그 자취를 추적해 '논개의 성장'과 '임진왜란의 발발'을 중심으로 작품을 형성화했다.

철저하게 고증을 통해 그려낸 조선 중기 '부패한 사회와 그 안의 사람들'은 흥미진진하다. 지방에서 백성들이 향리들의 수탈로 고통받고 있을 때, 조정에서 파견나온 관리들은 향리를 감독하기는커녕 이들과 어울려 노닥거리기에 바쁘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논개라는 한 여성을 주목한다.

(해냄·각 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넘치는 유전자조작식품 ... '신성한 씨앗'의 의미 성장



신성한 씨앗

골든 수피 센터 지음

씨앗은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를 더 높은 자어로 연결해주는 존재다. 또한 생명과 생명 사이를 이어주며 죽음을 넘겨해주는 다리다. 씨앗은 신성한 뿐 아니라 모든 음식의 시작이다. 현재의 우리는 이전에 먹었던 것이 이룬 결정체다. 그러나 유전자조작식품(GMO)은 전 세계 농경지 13%를 차지할 정도로 생대

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GMO의 해악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 식용 GMO 수입의 상위권 국가다. 유전자조작식품 범람 속에 지구를 살리는 길은 씨앗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 골든 수피 센터가 엮은 '신성한 씨앗'은 씨앗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한다.

"지구 민주주의" 운동 지도자인 만다나 시바는 서문에서 씨앗의 성스러움뿐 아니라 생명의 존엄함을 강조한다. 씨앗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출판사알·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마키아벨리 사상 엿볼 수 있는 진짜 대표작



왜 다시 마키아벨리인가

박흥규 지음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대표 고전인 '리비우스 강연(로마사 논고)'을 번역한 박흥규 교수가 한국인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낸 책 '왜 다시 마키아벨리인가'가 나왔다. '리비우스 강연'은 마키아벨리 사상의 일부를 담은 '군주론'이 아닌, 마키아벨리 사상을 모두 볼 수 있는 그의 진짜 대표작이다.

마키아벨리는 16세기 분열한 이탈리아(피렌체 공화국)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대 로마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한 로마가 어떻게 1000년간 제국을 유지하고 또 하루아침에 멸망했는가에 주목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역사자인 리비우스의 '두시가 세위기와부터(로마사)'를 통해 로마 공화정을 살펴보고, 로마인의 덕목과 행동에서 깨달은 교훈을 '리비우스 강연'에 담았다.

저자는 이 '리비우스 강연'을 단순히 쉽게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21세기 한국이 배울 만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유문문화사·1만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협회 육성/골프나무 지원

화순CC | JNJ | 영광CC | 아크로 | 화순엘리체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 디오션 | 함평엘리체 | 제주 | 고창

레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빌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글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외벽 단열방수 | 냉방방비 절감 |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한국방수시험연구원 02-462008-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물이 시뻐를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참조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선택가능합니다. 그중에서 만나다.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장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디디자이너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